

“산골무주 매력 만끽하러 오세요”

‘무주 마을로 가는 축제’ 27일·6월 3~5일 무주읍 대차리 소이나루공원 일대에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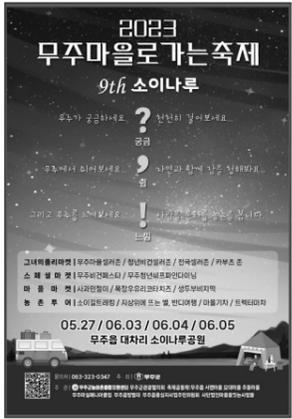
제9회 무주 마을로 가는 축제가 오는 27일 막을 올린다. 6월 3일~5일에도 무주를 대차리 소이나루공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6월 축제는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6.2~6. 무주군 일원)기간에 열려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 마을로 가는 축제’는 도시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고 무주군 무주읍 추동과 서면 요대마을 주민들이 함께 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소이길 트레킹’과 ‘지상위에 뜨는 별, 반디야행’, ‘산골여행 무주버스투어’, ‘그녀의 플라마켓’, ‘금도끼 은도끼 보물찾기’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만날 수 있으며 숙박도 가능하다.

‘소이길 트레킹’은 무주군 무주읍 서면과 추동, 요대 마을을 잇는 옛길을 걷고 스탬프를 미션을 완성하는 것으로, 무주투어패스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산골여행, 무주버스투어’를 통해서 무주군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버스를 타고 ‘반디랜드’, ‘라제동문’, ‘지전마을 옛 담장’, ‘머루와인동굴’, ‘한풍루’ 등 무주대표 관광지를 여행



제9회 무주 마을로 가는 축제 포스터

할 수 있다.

소이나루공원에서는 지역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그녀의 플라마켓’과 만날 수 있다. 전래대화 속 ‘금도끼’와 ‘은도끼’를 연상케 하는 보물찾기도 진행된다.

또 무주지역 청년들이 마련한 ‘비건 페스타’, 무주마실매니아클럽의 중고 장터가 손님들을 기다린다. 무주에 귀촌해 거주 중인 청년 셰프들이 운영하는 ‘파인다이닝’도 기대를 모으고 있

다.

이외에도 마을목장에서 채집한 생우 유리고다치치로 만드는 ‘젤라드’를 비롯해 ‘사과인절미 만들기’와 ‘트랙터 마차’, ‘깡통기차를 타고 떠나는 마을 여행’, ‘보석 찾기 광물체험’ 등의 체험거리도 마련된다.

무주 마을로 가는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자 (사)마을을 잇는 사람들 이사장인 이현승(52세) 씨는 “마을로 가는 축제는 태고적 자연을 간직한 무주에서 무주사람들이 만든, 가장 무주다운 축제”라며 “각각의 마을 특색과 주민들의 정성을 담은 제9회 무주 마을로 가는 축제에 오셔서 산골무주의 정취와 인심, 그리고 여유를 만끽해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6월은 무주산골영화제 기간이기도 해서 영화제를 보러 왔다가 마을 축제에 오셔도, 마을축제에 오셨다가 영화제를 보셔도 너무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무주군(무주읍 등나무운동장, 산골영화관, 한풍루,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설천면 덕유산국립공원)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5개국 88편의 영화 상영을 비롯해 공연과 전시, 토크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무주=전문선 기자



반딧불이 보호·육성 최선

무주군, 7월 초까지 운문산반딧불이 출현 실태조사 추진

무주군이 청정환경의 지표곤충인 반딧불이를 보호·육성하고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3년도 운문산반딧불이 출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7월 초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전 직원들이 나서 주변 환경과 운문산반딧불이 출현 개체를 육안조사(20:30~23:00) 하게 된다.

무주군은 관내 반딧불이 출현 지역을 중심으로 다량 서식지를 찾아 이를 보호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연구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운문산 반딧불이 출현지역 조사 결과, 무주읍이 12곳, 설천면 10곳 등 모두 35곳이 발견됐으며 이 중 100마리 이상 다량 출

현지역은 3곳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반딧불이팀 정재훈 팀장은 “이번 조사를 반딧불이 연구 기반으로 삼는 한편, 무주산골영화제 기간 동안 진행할 신비탐사를 위한 기초 자료도 활용할 계획”이라며 “운문산반딧불이가 애반딧불이에 비해 발광력이 좋아 탐사객들의 호응도 좋은 만큼 최적의 탐사 장소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산골영화제와 함께 하는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5월 16일부터 무주반딧불이축제 홈페이지(www.firefly.or.kr)를 통해 하면 된다.

체험비는 1인당 1만5천원(36개월 미만은 무료)이며 탐사객들에게는 무주사랑상품권 5천원 권이 제공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경찰서, 스쿨존 음주운전 특별 단속 전개

장수경찰서(정덕교 서장)는 최근 대낮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등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관심 집중과 국민 불안감 증대되고 있어 4월부터 5월까지 스쿨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주간, 야간 불시에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로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인 음주운전 및 보호구역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강화했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주간 야간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음주 단속을 시행한다. 기존 야간 시간대에서 주간 시간대 스쿨존 중심으로 매주 1회이상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정덕교 서장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이고, 우리사회에서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며,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도록 하여 안전한 장수군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마을단위 건강걷기 동아리 활동 활발

진안군은 지난 2월부터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건강걷기 동아리가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하며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건강걷기 동아리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마을별 동아리 대표 주도 하에 마을안길, 공원길, 농로길, 돌레길 등 생활터를 함께 걸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걷기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건소는 각 동아리에게 스트레칭 및 올바른 걷기 방법을 교육하고, 동아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참여 독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상생활에서 걷기 운동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 비대면 걷기 어플인 ‘워크온(walk-on)’을 활용

해 걷기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어울림 화합한마당 행사 성료

다문화가정·주민 등 300여명 참석 가족운동회·체험 등 진행

무주군 어울림 화합한마당 행사가 세계인의 날인 지난 20일 무주읍체문화관에서 개최됐다.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장진원)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군민화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송재기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관내 다문화가정과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관내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된 레인보우밴드와 필리핀 전통춤 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가족운동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베트남, 필리핀 등 국가별 문화·음식 체험 부스와 포토 존이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기념식에서는 무주읍의 강유빈 씨(44세)가 건강장 가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군수 표창을, 안성면 박점순 씨(66세)가 군

의회 의장상을, 무주읍의 이금화 씨(49세)와 로라벨(38세)이 무주군가족센터에서 주는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사랑이 충만한 가정의 달 5월에 활짝 웃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며 “태생은 서로 다르지만 무주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족이고 이웃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더욱 돈독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무주에서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2세대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정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군 어울림 화합한마당 행사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개최해오다 2018년부터 전 군민 화합행사로 확대해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새단장 위한 휴장 기간 가져

진안군은 지난 19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리모델링을 위하여 오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휴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2013년 4월 개관 이후 2021년 체력단련장·에어로비장을 증축해 운영하고 있으나 공조설비의 노후와 천장 부식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및 이용자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결정했다.

총사업비 8억원(국비 4억, 군비 4억)을 들여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수영장 공조설비 및 천장 전면교체, 기계실 공조설비 전면교체 및 급·배수 부분 보수 등 수영장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하지만 2층 체력단련장은 정상운영하고 급·배수 부분보수 등 꼭 필요한 공사 기간에만 임시 휴장 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공무원들, 농촌일손돕기 나서

장수군 공무원들이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해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지난 19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이상고온으로 과수 개화기가 빨라진 상태에서 4월 갑작스런 이상저온으로 과수농가들이 냉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군은 4월부터 전 부서가 냉해 피해에 더해 인력 수급 어려움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사과꽃피 등 일손돕기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보건사업과 직원 20여 명의 천천 비봉리 농가 사과꽃피 작업을 시작으로 5월에는 11개 부서 200여 명이 사과과과, 토마토 모종식재, 포도 봉지 씌우기,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등을 진행하며 농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소통·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손돕기에 참여한 직원들은 “한창 바쁠 농번기에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가들은 “갑자기 발생한 냉해 피해



와 인력 부족으로 일손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에서 군청 직원들이 영농작업에 힘을 보태줘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장수군은 6월까지 27개 전 부서 500여 명의 직원이 농촌일손돕기 봉사 활동을 실시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촌 일손돕기를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영농에 차질없이 작기에 농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